

- 주요 뉴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전 조짐(28일 마우 화담 가능성, 국제유가 큰 폭 하락)
 - 일본 다카이치 내각, '26회계연도 예산안(¥122.3조, 사상최대) 결정
 - 중국인민은행(적극적 거시정책) · 공업정부화부(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중기 정책방향 제시
 - 남아시아 신흥국 통화, 상반된 환율 여건 직면(태국은 5년래 최고, 인도는 사상 최저)
- 국제금융시장: 연말(성탄절) 거래량 감소 속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로 위험선호 유지
 - 미국 주가 약보합[-0.03%], 달러화 강보합[+0.05%], 금리 보합[-0bp]
 - 주가: 미국 S&P500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동인 부재 속 상승 폭 반납
일본 Nikkei225는 기술주 선호로 0.7% 상승,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 일본 재정건전성 우려에 의한 엔화 약세 등으로 소폭 상승
유로화는 미 달러화 대비 0.1% 약세, 엔화는 0.5% 약세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 금리인하 기대에 기반한 하락세를 재개
독일 · 영국 등 유럽 채권시장은 성탄절 연휴로 휴장

※ 뉴욕 1M NDF 증가 1440.6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2.2원, 0.13% 상승), 한국 CDS 보합

		12.26일	12.25일	전일대비			12.26일	12.2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929.9	휴장	-0.03%	국채 금리 10y	미국	4.13%	4.13%	-0bp
	유럽	휴장	휴장	-0.33%		독일	휴장	2.86%	-2bp
	중국	3,963.7	3,959.6	+0.10%		영국	휴장	4.51%	-4bp
	일본	50,750	50,408	+0.68%	CDS 5y	한국	22bp	22bp	-0bp
	한국	4,129.7	휴장	+0.51%		중국	44bp	44bp	-0bp
환율	달러지수	98.02	휴장	+0.05%	위험 지표	EMBI+	-	-	
	유로화	1.1772	1.1784	-0.10%		VIX	13.60	휴장	+0.97%
	엔화	156.57	155.83	-0.47%		WTI유	56.74	휴장	-2.76%
	위안화	7.0054	7.0057	+0.00%	원자재	구리	576.65	휴장	+4.87%
	원화	1,440.3	휴장	+0.66%		금	4533.21	휴장	+1.2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전 조짐. 국제유가 큰 폭 하락

-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12.28일(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해 평화 구상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최대한 많은 현안을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 아울러 유럽 정상들의 온라인을 통한 회담 참여를 희망
-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최근 미국 측이 제시한 평화구상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 단, 우샤코프 외교정책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평화구상안(20개항)은 러시아가 미국측으로부터 수령한 평화구상안(28개항)과는 다르다고 발언
-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와 맞물리면서 큰 폭 하락(WTI유 -2.8%, 브렌트유 -2.6%). 이로 인해 연간 낙폭이 20% 내외로 확대하면서 '20년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할 가능성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일본 다카이치 내각, '26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 내각부,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 정기국회에서의 조기 통과를 목표로 '26회계연도 예산안을 결정. 총액은 ¥122.3조(사상 최대, '25년 대비 +¥7.1조)이며,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경제의 실현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양립시키는 예산안이라고 평가
- 세출 항목 중에서는 국채비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장 큰 폭 증액(¥3.1조^{25FY} ¥28.2조 → '26FY ¥31.3조)되었고, 사회보장비는 ¥0.8조 증편(¥38.3조 → ¥39.1조), 방위관계비는 ¥9.0조(사상 최대)로 편성. 세입의 경우 세수는 ¥5.9조 증가(¥77.8조 → ¥83.7조)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신규 국채 발행은 ¥0.9조 확대(¥28.6조 → ¥29.6조) 예정

■ 중국인민은행, 향후 더욱 적극적인 거시정책 시행을 예고

- 2025년 금융안정보고서,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26~'30년)의 순조로운 시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거시정책 시행을 예고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물가의 합리적 회복 촉진 ▲풍부한 시중 유동성 및 낮은 수준의 사회종합융자비용 유지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 유지와 급격한 변동 방지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

-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전면적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 완비 및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평가 강화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 강화 ▲적극적인 중소 금융기관 리스크 처분 ▲부동산 금융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강조

■ 중국 공업정보화부, 전국 산업·정보화 업무회의 결과 공개

- 공업정보화부, 15차 5개년(26~30년) 동안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과학기술 혁신 능력 제고 ▲정보화와 산업화의 융합 등을 포함한 10대 중점 업무를 발표
- CCTV(국영언론)는 중국 산업생산이 최근 둔화(11월 +4.8%)되면서 `24년(+5.8%)과 비슷한 연간 증가율(+5.9%)을 기록할 것이라는 공업정보화부의 전망을 보도

■ 남아시아 신흥국 통화, 상반된 환율 여건 직면(태국은 5년래 최고, 인도는 사상 최저)

- 태국 중앙은행(BOT) 총재, 예상보다 큰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바트화 강세가 태국 수출업체 및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계감을 표명하면서, 하반기 들어 환율 변동성 완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고 있다고 언급
- 인도 중앙은행(RBI)은 지난주 루피화 약세 심화(12.16일 달러당 91.08루피)에 대응해 대규모 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했으나 금주 들어 루피화 약세가 재개(주간 -0.2%). 26일에는 국영은행(달러 매도)을 통해 루피화 약세에 대응한 것으로 추정(Reuters)

■ 필리핀 중앙은행(BSP), `26년까지 외환수급 악화 상태 지속 예상

- BSP, 필리핀의 중기적 외환수급 전망을 재점검한 결과 `25.1분기부터 시작된 국제 수지 적자(≒ 외환·외화자금 순유출)가 `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 물류 병목 및 기술 불일치 여건 속에서 직접·증권투자를 통한 자금 순유입(`25년 \$151억 → `26년 \$131억)보다 경상수지 적자(\$155억 → \$153억)가 더 클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

주요 경제·금융 이벤트

- 일본은행(BOJ), 12.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주요 의견 공개 예정
- 미국 11월 잠정주택 판매(+0.8%_{mom}), 12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5), 인도 11월 산업 생산(+2.6%, Bloomberg 서베이) 등 경제지표 발표(이상 현지시간 12.29일 기준)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11, E-mail swlee@kcif.or.kr